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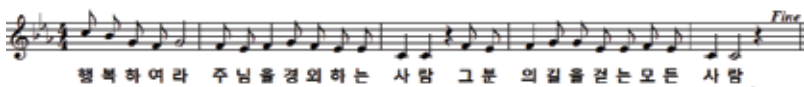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충애를 받았다.”
(루카 2,39-40)

〈나자렛 성가정〉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제1독서]..... 집회 3,2-6.12-14

[화답송] 시편 128(127),1-2.3.4-5
(◎ 1)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밭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2독서]..... 콜로 3,12-21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루카 2,22-40〈또는 2,22.39-40〉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14] 나자렛 성가정
- 봉헌성가: [221] 받아주소서
[220] 생활한 제물
- 성체성가: [178] 성체 앞에
[180] 주님의 작은 그릇
- 파견성가: [113] 성요셉과 성마리아

복음 아기는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졌다.

²²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²³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 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²⁴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²⁵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²⁶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²⁷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²⁸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²⁹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³⁰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³¹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³²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³³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³⁴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³⁵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³⁶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³⁷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³⁸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³⁹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⁴⁰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묵상

성가정은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 요셉이 이루신 가정을 말합니다. 성가정은 주님의 뜻 안에서 지상 생활을 이끌어 가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생기는 고통이나 시련은 구원 사업을 위하여 바치는 살아 있는 제물로 봉헌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의 예물을 바칠 때, 가난한 사람의 제물을 바칩니다.

요셉 성인은 성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따르는 본보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요셉 성인은 생계를 꾸리려고 목공 일을 함으로써 노동의 존엄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성모님의 삶은 영혼에 칼이 꽂히는 일곱 가지 고통으로 묘사됩니다. 성모님께서 시메온의 예언을 들으셨을 때, 이집트로 피신하셨을 때,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으셨을 때,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품에 안으셨을 때, 예수님을 무덤에 모실 때, 성모님의 영혼은 칼에 찔리듯 아프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아드님과 함께 구원 사업의 고통을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모님과 성 요셉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께서 지상의 부모에게 순종하시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가정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족으로 모시는 가정은 성가정을 본받는 가정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구원 사업에 모두 함께 참여하는 가정도 성가정이 됩니다. 성가정 안에는 온갖 덕이 넘칩니다. 우리 가정에 겸손과 온유의 삶, 인내와 용서의 삶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성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나자렛 성가정의 은총으로 우리 가정이 구원의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은 나자렛의 성가정을 기억하며 이를 본받고자 하는 축일이다. 1921년 이 축일이 처음 정해질 때에는 ‘주님 공현 대축일’ 다음 첫 주일이었으나, 1969년 전례력을 개정하면서 ‘성탄 팔일 축제’ 내 주일로 옮겼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해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부터 한 주간을 ‘가정 성화 주간’으로 지내고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가꾸어 나가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성가정



〈성 가정과 작은 새〉,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스페인의 미술사를 보면 17세기가 스페인 예술의 황금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스페인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있어서 빛나는 영광을 누렸으며, 스페인 문화는 다가올 세계 예술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벨라스케스로 인해 세비야의 화가들 수르바란, 무리요, 발데스 레알 등의 화가들이 스페인 안팎으로 알려져 독특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고, 특히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Bartolome Esteban Murillo, 1618-1682)는 하느님에 대한 신실하고 강한 믿음을 드러내주는 종교화의 영역에서 두각을 보였다.

무리요가 1650년경에 그린 〈성 가정과 작은 새〉는 스페인 남부 세비야의 소박한 가정집 실내를 보는 듯 친근하고 자연스럽다. 그는 일상적인 생활과 종교를 접목시켜 즐겁고 화목한 가정을 성 가정으로 표현했다. 실내 배경은 누추하지만 즐거워하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일상의 잔잔한 행복이 느껴지며 성인들 머리 위에 늘 그려진 후광이나 종교화만이 지니는 특별한 소재들이 없는 종교화를 그렸다.

아직 걸음마를 하지 못하는 금발의 아기 예수님은 손에 방울새 한 마리를 움켜쥐고 강아지와 장난을 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한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쥐고 있는 방울새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흰 강아지는 주인에 대한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을 암시하기에, 믿음으로 죽기까지 하느님께 순종한 예수님의 미래를 예견한다.

등을 반쯤 돌리고 앉아 있는 자주색 복장의 성모님은 가족들이 입을 옷을 만들기 위해 물레를 돌리며 실을 풀고 있다. 마리아는 실을 풀면서도 시선을 아들에게서 떼지 못하고, 해맑은 모습으로 장난치는 아들을 보며 지긋이 미소를 짓고 있다. 바느질이나 옷 수선은 17세기에 부지런한 어머니가 가정에서 하는 일과이며, 바느질거리가 담겨 있는 바구니 묘사에서는 수르바란과 리베라에게서나 볼 수 있는 사실적인 정물묘사를 엿볼 수 있다.

흔히 백발의 노인으로 묘사되었던 성 요셉은 듩직한 젊은 가정으로 묘사되었다. 요셉은 오른손으로 아기 예수님을 감싸 안고 있고, 왼손으로 재롱떠는 강아지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전통적인 성 가정 그림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성모님보다 성 요셉이 더 크게 부각되었는데, 이것은 16세기 후반부터 강조된 성 요셉의 역할에 대한 교회의 영향으로 보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성모자를 보호하는 성 요셉의 역할이 이 시기에 가톨릭교회에서 재조명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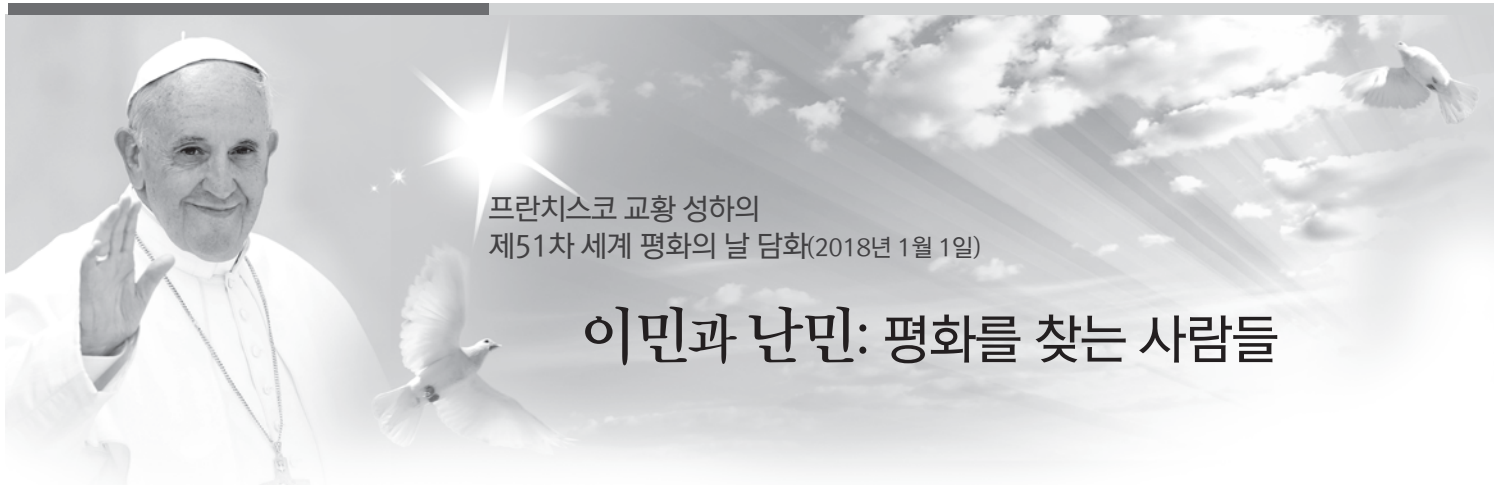
성 요셉 뒤에는 그의 본업인 목공 일을 위한 작업대와 공구들이 즐비하다. 이것은 목수의 평범한 실생활을 보여주는 장면이며, 근면하고 검소한 요셉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뒤쪽의 어두운 배경은 빛을 받고 있는 인물들과 대조를 이루어 보는 이의 시선을 인물들에게 머물게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가난하고 소박하지만 일상에 녹아든 성 가정의 사랑 넘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어 가정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물질적 풍요가 넘칠수록 가정과 사랑의 의미는 점점 상실되어 간다. 따뜻한 인간애와 깊은 종교적 신심을 가진 무리요는 이 아름다운 성 가정의 모습을 통해 일상의 행복은 아주 작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가정을 위한 기도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람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 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1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2018년 1월 1일)

이민과 난민: 평화를 찾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빕니다!

제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2,250만 명의 난민을 포함한 2억 5천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이주민들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과 기아를 피하여, 또는 차별과 박해와 빈곤과 자연 훼손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을 자비심으로 끌어안읍시다. “더 나은 삶을 간절히 바라고, 흔히 기약 없는 미래에 대한 ‘절망’에서 벗어나 떠나고자” 이주를 합니다. 그들은 가족과 결합하려고 또는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를 찾아 떠납니다.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규적 통로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안전도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모든 합법적 통로는 비현실적이고 가로막혀 있으며 너무 느린 것으로 보일 때에, 주로 절박한 심정으로 다른 방도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향하는 많은 목적지 국가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거나 새 입국자들을 받아들이는 비용이 크다고 역설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모든 이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인간 품위를 깎아내리는 과장된 외침이 확산되었습니다. 아마도 정치적 이유들 때문에 평화를 조성하는 대신에 이주민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폭력과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안전을 염려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근심거리입니다.

국제 사회의 모든 지표들에 따르면, 전 세계적 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평화를 건설하는 기회로서 확신을 갖고 보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행동을 위한 네 가지 이정표

비호 신청자, 난민, 이민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그들이 갈구하는 평화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려면 네 가지 행동, 곧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그리고 통합하기를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환대하기**”는 이민들과 실향민들이 목표한 국가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그들을 더 이상 박해와 폭력의 나라로 몰아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국가 안보에 관한 염려와 기본적 인권에 관한 배려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요구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까.”

“**보호하기**”는 피신처와 안전을 찾아 실질적 위험들에서 달아난 사람들의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착취당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심지어 노예살이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과 학대의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방인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

“**증진하기**”는 이민과 난민의 온전한 인간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수많은 가능한 수단 가운데, 저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모든 단계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잠재력을 가꾸고 실현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거부와 대립보다는 대화의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더욱 잘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하느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끝으로 “통합하기”는 난민과 이민이, 지역 공동체의 온전한 인간 발전에 봉사하는 가운데 상호 풍요로움과 유익한 협력 과정의 일부로서, 자신들을 환대하는 사회의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공동의 집을 위하여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도록 합시다.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여럿이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이민들과 난민들의 공헌을 평가할 줄 안다면 인류는 모든 이의 가정이 되고 우리들의 이 지구는 참으로 ‘공동의 집’이 될

것입니다.” 전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이 “꿈”을 믿었고, 그들이 이룬 성취는 그것이 단지 유토피아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분들 가운데, 올해로 선종 100년을 맞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카브리니 성녀를 기억합니다. 이 탁월한 여성은 이민들을 섬기는 데 생애를 봉헌하였고 그들의 주보성인이 되었습니다. 성녀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보호하며 증진하고 통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녀의 전구로써,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음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교황, 2년 연속 “한반도 평화 위해 기도” 호소

성탄 축복 메시지 발표, ‘전쟁의 바람 몰아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언급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줄 것을 2년 연속 성탄 메시지를 통해 호소했다. 교황은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 정오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서 로마와 온 세계에 성탄 축복 메시지 ‘우르비 엠포르비’(Urbi et Orbi)를 전하면서 “한반도에 대치 상황이 해소되고, 전 세계가 추구하는 상호 신뢰가 증진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교황은 “오늘날 세상에 전쟁의 바람이 몰아치고,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 방식이 인간과 사회, 환경의 쇠퇴를 끊임없이 초래하고 있다”면서 예루살렘 문제와 함께 북핵 위협으로 전운이 가시지 않는 한반도를 ‘전쟁의 바람이 몰아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다. 교황은 2016년 성탄절에도 “한반도가 새로운 협력의 정신으로 긴장을 완화해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황은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표징에 집중하도록, 특히 ‘(베들레헴) 여관에 자리가 없는’ 아기 예수처럼 연약한 어린이들의 얼굴을 알아보라고 재촉한다”며 아프리카와 중동 분쟁지역의 어린이들을 기억했다. 또 “그날 베들레헴 여관들이 그러했듯 우리가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달아걸어서는 안 된다”며 그 아이들 얼굴에서 아기 예수를 찾으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교황은 전날 성탄 밤 미사에서 2000년 전 해산할 곳을 찾아 헤맨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에 빗대 오늘날 정착할 곳을 찾아 떠도는 이주 난민들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교황은 “베들레헴에는 마리아와 요셉을 맞아주는 사람도, 그들이 들어갈 곳도 없었다”며 “타인에게 등을 돌린 채 자기 성장만 바라는 것 같은 시골벽적인 도시의 어둠 속에서 하느님 사랑의 혁명적 불꽃(주님 탄생)이 발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팔을 들어올려 받아 가슴에 안듯이 목마른 사람, 이방인, 헐벗은 사람을 품어 안으라”고 당부했다.

교황은 제51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주제도 ‘이민과 난민’으로 정했을 만큼 이주 난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가톨릭 신문)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1월 1일(월) 오전 8시, 10시 미사



성모 대관식(The Coronation of the Virgin), 디에고 벨라스케스

1월 1일(월)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며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날짜에 기념해 오던 이 축일은 에페소 공의회 1500주년인 1931년부터 세계 교회의 보편 축일이 되었고, 1970년부터 모든 교회에서 해마다 1월 1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평화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 평화의 선물을 청합니다.

2017 CYO Winter Retreat



“Retreat is always one of the most anticipated events we have every year. It’s amazing to see all of CYO students come together in one place over the weekend and grow closer to each other. Retreat is really one of the best learning experiences anyone will have in high school. It’s one of the most emotional events of the year, but it never fails to be fun. I know everyone had a great time, and it will be great to see everyone again next year!”

■ Jonathan Kim, 12th grade

“I had an amazing time at retreat. It was an extremely fun trip that was full of laughs, but was very emotional at the same time. I’ve made many new friends and became a little bit closer with everyone there. I do not regret going and I’d love to come back next year.”

■ Joyce Choi, 9th grade

December 31st

The Holy Family of Jesus, Mary and Joseph

O God, who were pleased to give us the shining example of the Holy Family, graciously grant that we may imitate them in practicing the virtues of family life and in the bonds of charity, and so, in the joy of your house, delight one day in eternal reward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who lives and reigns with you in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one God, for ever and ever.



The Solemnity of Mary, Mother of God

Feast date : January 1

The feast is a celebration of Mary’s motherhood of Jesus. The title “**Mother of God**” is a western derivation from the Greek Theotokos, which means “**God-bearer**”.

On this day, we are reminded of the role that the Blessed Virgin played in the plan of our salvation. Through the Holy Spirit, God the Father prepared Mary to be the place where His Son and His Spirit could dwell among men. Christ’s birth was made possible by Mary’s fiat, or sanctioning of God’s plan with her words, “Be it done to me according to thy word”.

Calling Mary “**Mother of God**” is the highest honor we can give to her. Just as Christmas honors Jesus as the “**Prince of Peace**”, the Solemnity of Mary, Mother of God, honors Mary as the “**Queen of Peace**”. New Year’s Day is also designated as the “**World Day of Peace**”, further acknowledging the role of Mary in our hearts and in our world.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민수 6,24-2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일시 : 1월 1일(월) 오전 8시, 10시(성인, 학생 합동)

2 병자 영성체

• 일시 : 1월 5일(금)
• 신청 : 조영인 형제 (703)264-0050

3 회장단 회의

• 일시 : 1월 5일(금) 오후 8시(회의실)

4 성체강복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에 "성체강복"을 거행합니다.
많이 참석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2018년 1월 첫토요일 성모신심 기도모임

• 매월 첫째 토요일에 묵주기도와 묵상을 함께 하며 성모님께 봉헌드리는 성모신심 기도모임에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8년 1월 6일(토) 오후 6시 15분 - 7시
• 장소 : 본당
• 준비물 : 묵주

6 성모님과 함께 새해맞이 친교

• 일시 : 2018년 1월 6일(토) 오후 7시 미사 후, 친교실
• 대상 : 파티마 쉼 회원, 첫토요 성모신심 참가자, 33일 봉헌자, 교우 누구나
• 주최 :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문의 : 김 그라시아 (571)243-5054

7 주일학교 휴강

• 2017년 12월 31일

8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1월 7일(일) 오전 11:30(B-1,2)

9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1월 7일(일) 오후 1시(B-1)

10 청소년 사도회의

• 일시 : 1월 7일(일) 오후 1시(B-3,4)

11 본당 달력 배부

• 2018년도 본당 달력을 친교실에서 각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해 드리고 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2 2018년 교무금 카드

• 2018년 교무금 카드는 세무공제 납부서와 함께 우편으로 각 가정으로 발송되니 당분간 카드없이 납부해 주십시오.

13 동전 모으기 저금통 봉헌

• 대림시기 동안 나누어 드린 저금통을 주님공헌 대축일(1월 7일)에 봉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불우이웃 돕기에 쓰여집니다.

14 저금통 동전 분류 작업

• 주님공헌 대축일에 봉헌하는 동전 저금통 분류 작업 및 정리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월 7일(일), 14일(일), 10시 미사 후(A-1,2)
• 문의 : 김진호 다니엘 (703)300-5420

15 2018년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운동)

• 일정 : 2018년 1월 19일(금)
• 참석 인원 : 선착순 55명
• 참가 신청 : 1월 14일까지
• 문의 : (703)978-4005

16 한국의 어머니 Pr 1,500차 레지오 회합

• 일시 : 2018년 1월 9일(화) 오후 8시
• 한국의 어머니 Pr (현재, 구) 단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박소피아 (571)225-8676

17 남자 화장실 공사 안내

• 남자 화장실 공사로 인해 4주 동안(2018년 1월 2일-26일까지)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 기간 동안 하상관 1층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8 2018년도 매일미사, 병초, 봉헌초 주문

• 성물부에서 2018년 매일미사, 병초, 봉헌초(미사에 사용) 주문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성당 현관 앞 구유를 제작한 로고스, 구유를 만드신 전례부, 대진교를 준비해 주신 성모회와 아름다운 미사를 준비해 주신 제대회, 성가대, 복사단, 핸드벨 팀, 재무부, 문화부, K of C 그리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2월 31일(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8시, 친교실/하상관), 주일학교 휴강
1월 1일(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오전 8시, 10시 미사(성인, 학생 합동)
2일(화)	성 대 바실리오와 나자리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 학자 기념일	사무실 휴무, 성령기도회(오후 8시),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3일(수)	주님 공헌 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4일(목)	성녀 엘리사벳 앤 시튼 기념일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5일(금)	성 존 노이만 주교 기념일	병자 영성체,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성체강복), 회장단 회의(오후 8시)
6일(토)	주님 공헌 전 토요일	아침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알링턴 교구 교사교리(오전 9시, 친교실), 파티마 사도직 셀모임(오후 3시, B-4), 첫토요 신심오후 6:15, 친교실)
1월 7일(일)	주님 공헌 대축일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 아멘.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1월 4일(목) 오후 5:00-6:00
1월 5일(금) 오후 8:00-9:00
1월 7일(일) 오전 6:00-7:00

• 성탄절 특집: 알링턴 교구 성 정 바오로 성당의 성탄 밤 미사를 녹화 중계해 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12월 24일 (대림 제4주일)

주일헌금 \$ 11,077.00
교무금 \$ 24,07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7,310.00
특별헌금 \$ 200.00
구유예물 \$ 14,638
성탄헌금 \$10,964
합계 \$ 68,259.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무공제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무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균(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재중(요셉), 송영호(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아나시요), 안순경(모니카), 이수선,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현(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최재근(시몬), 권 미카엘, 김 루시아, 백명수(마리아), 고필순 켈라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테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루자노), 이슬(루시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백찬(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레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엘(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성경(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이크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립(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파나) 703-992-7930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맨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메 디 케 어 홍석철 마태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옥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양 요 한 동양화 표구 전문 703-628-0114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Cha Group 앤디 차 (CPA) 703-678-8848	Kim Chiropractic & Rehab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Dr. 김재중(요한) 703-815-2300	광고 접수중!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 저녁 6시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